

지 상 법 석

“지혜 신통 얻으려면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 百丈老人有一天上堂下後
백장로인유일천상당하좌후
各人都已散去 獨有一位老人沒辭罷
각인도이산거 독유일위로인몰유포
百丈問 他作甚麼
백장문 타작심마
他說 我不是人 實是野狐精
他說 我不是人 實是野狐精
타실 아불사인 실시아호정
前生本是 這裏的當頭
前生本是 這裏的當頭
전생본시 저리적당두
因有箇學人問我 大修行人還落因果否
因有箇學人問我 大修行人還落因果否
인유개학인문아 대수행인환락인과부

使用亡僧禮 將他和葬
변용망승례 장타화장

백장이 대답했다. 인과에 어둠지 않다
(염매이지 않는다).
노인은 언하에 크게 깨달았다.
곧 예를 갖춰 절하고서는, 이제 화상의
말씀을 듣고 제가 여우 탈을 벗어났으니
뒷산 바위 아래 내 몸이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화상께서는 승가의 법도에 따
라 장례를 치뤄주시요 하였다.
다음날 백장은 뒷산 바위 아래서 한
마리 죽은 여우를 찾아내
승가의 예법대로 장례를 치루었다.

我聞聽了這兩段故事 便確知 因果可畏
我聞聽了這兩段故事 便確知 因果可畏
이문청료저이단고사 변확지 인과가의
畏成佛也難免頭漸之報
畏成佛也難免頭漸之報
수성불아난면두통지보
報應絲毫都不爽 定業實在難逃
報應絲毫都不爽 定業實在難逃
보응사호불상 정업실재난도
我“宜時加警覺 慎勿造因
我“宜時加警覺 慎勿造因
아문의시가경각 신물조인

◎ 백장 노사가 하루는 법상에 올라
법을 설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다 돌아 갔어도 오직 한 노
인이 머뭇거리고 있었다.
백장이 웃기를, 그대는 뭐하는가? 노
인-나는 본시 사람이 아니고 여우인데
전생에는 이곳의 당두(조실)이었다.
어느때 학인이 물기를 크게 수행한
사람도 도리어 인과에 떨어질까? 아
닙니까? 하기에

“과보 상응 터럭만큼도 어긋나지 않으니
때마다 삼가하여 원인을 만들지 말아야”

我聞 不落因果 便因此墮落
아실 불락인과 변인차타락
‘了五百年野狐精 沒法脫身
了五百年野狐精 沒法脫身
작료오백년야호정 몰법탈신
語和尚意深開示
語和尚意深開示
청화상자비개시
百丈說 窺來問我
百丈說 窺來問我
백장설 이래문아
那老人便道 諸師和尚 大修行人還落因
那老人便道 諸師和尚 大修行人還落因
나로인편도 청문화상 대수행인환락인
果否
果否
과부

우리들은 이 두가지 고사를 듣고 문득
인과가 가히 두려움을 확실히 알았다.
비록 부처가 되어서도 두통의 과보를
면키 어렵다.
과보의 상응함은 터럭만큼도 어긋나
지 않으니 정해진 업은 실로 피할 수
없다.
우리들은 때마다 가히 두려워하고 삼
가여 원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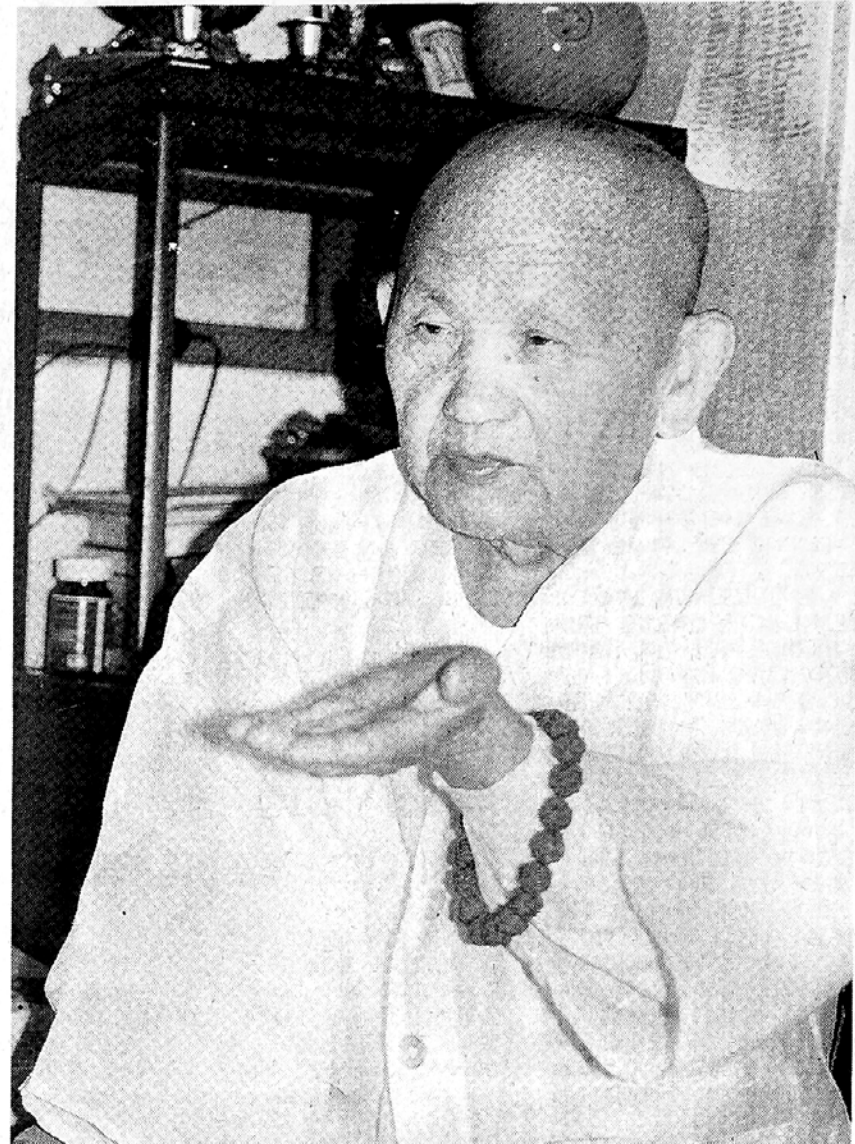
用功辦道 首要持戒 戒是無上菩提之本
용공판도 수요지계 계시무상보리지본
因戒才可以生定 因定才可以發慧
因戒才可以生定 因定才可以發慧
인제재가이생정 인정재가이발혜
若不持戒而修行 無有是處
若不持戒而修行 無有是處
약부지계이수행 무유시처
楞嚴經 四種淨明誨 告誡我們
楞嚴經 四種淨明誨 告誡我們
능엄경 사중정명명회 고소아문
不持戒而修三昧者 難不可出
不持戒而修三昧者 難不可出
부지계이수삼매자 진불가출

애써 수행하여 도를 이룸에는 계를
지킴이 으뜸이다. 계율은 위없는 깨달음
의 근본이다.
계로 인해 가히 정이 생기고 정으로
인해 가히 혜가 나타난다.
만약 계를 지키지 않고 수행한다 함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능엄경)에서 네가지 청정을 명백히
밝혀 우리에게 고하고 있으니
계를 지키지 않고 삼매를 닦는다 해
도 번뇌를 벗어 날 수는 없다.

龍眼

내 나이가 올레로 여든 넷인데 참 부끄
럽고 덧없군요. 부처님은 여든해를 산다 가
셨는데 나는 그 보다 4년을 더 살았어도
아무 가치 있는 일을 못했어요. 이 늙은 몸
이 누구의 것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몸이
란 것은 자꾸자꾸 같이 입는 옷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살기를 맞게 살았느냐
가 그리 중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살았
는가 하는 것은 이 영원 불멸의 영혼을 위
해 다음 옷을 어떤 걸로 준비 했느냐는 문
제이기도 합니다.
‘인생난득 남생난득 불법난득’이란 말도
있지만 인간의 몸을 받았어도 축생의 업을
지었으면 다음 생의 옷은 축생이고 축생의
몸을 받았어도 인간될 업을 지으면 다음생
의 옷은 인간이란 것이 윤회의 이치 아닙
니까. 이 몸은 헛것입니다. 다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영혼은 있으니 그를 바
로 아는 일이 우리의 숙업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혼 정신등으로 말하
기도 하는 그놈을 우리는 어떻게 불려야
합니까. 마음이라 해도 그 본래 면목이 아
니고 영혼도 정신도 다 그 이름일 뿐이지
그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성(自性)이
라 말 하는 것도 마찬 가지입니다. 이름이

원상스님
승가사회주



- 약력
- 1913년 경기도 가평 생
- 30년 삼각산 승가사에서 심원화상 은사로 득도
- 봉은사 신원사 등에서 시미 사지 사교 대교 이력
- 43년 중국 연변 장춘 하얼빈 등에서 만행
- 70년 태고종 창종공로포 수상
- 92년 호명산 감로사서 208인거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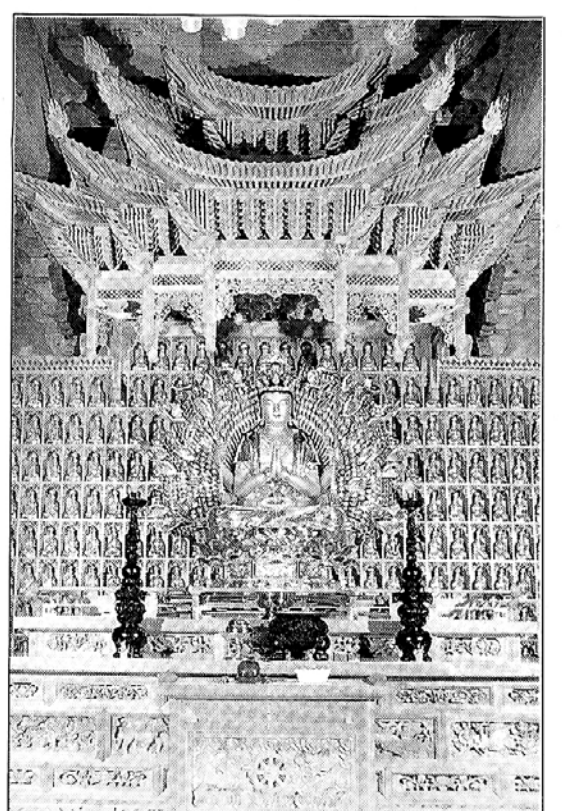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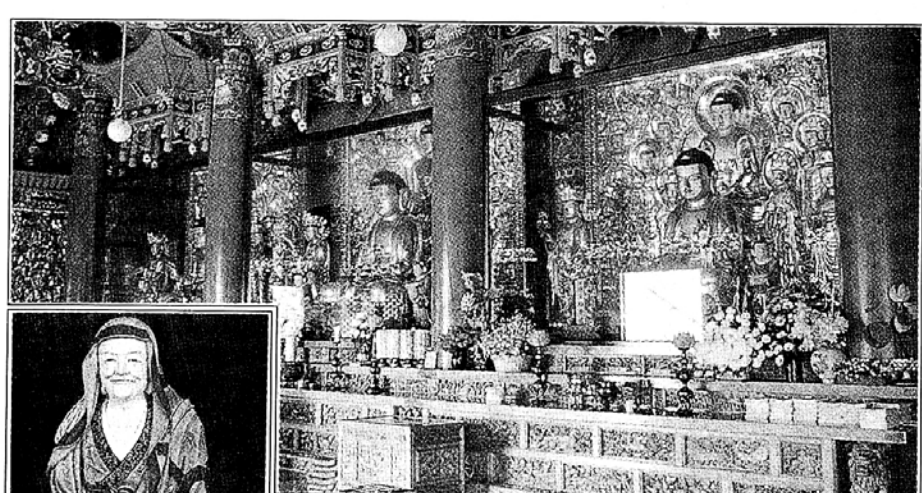
인간 몸 받았어도
축생 될 업 지으면
다음 생은 축생이고
축생 몸 받았어도
인간될 업지으면
다음생은 인간
무엇이건 그건 중요한 것이 없지요. 다만
그놈의 실상을 알아내는 일이 절박할 뿐입
니다. 그 절박한 숙제를 풀기 위해 불교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불교는 지혜와 신통의 가르침입니다. 부
처님과 제불보살은 지혜와 신통의 선생님
들입니다. 지혜는 우주법계의 근본이 되는
자성을 아는 것이고 신통은 그 지혜를 통
해 우주법계를 살피고 누리는 즐거움의 행
(行)들입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나일뿐입
니다. 나라고 하는 주인이 지극한 지혜를
얻으면 신통의 경지에 이르러 삼천역 국토
의 모든 모습을 두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천의 국토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에는 이
사바계보다 험난한 곳도 있을 것이고 더
아름다운 곳도 있을 것이지만 지혜의 마음
으로 그 세계를 관하면 미추의 분별도 없
어집니다. 그러나 삼천의 국토가 하나도 없
이고 하나 속에 삼천의 국토가 들어 있음
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
겠습니까.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어야 지혜

를 증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 수행정
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타 부처님의
극락정도를 일길 원한다면 내가 아마타불
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마타불
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서원을 세
워야 하고 다음으로 아마타불의 행을 하면
됩니다. 내 몸안에 이미 제불보살의 모습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마타불을
원하면 아마타불이 될 수 있고 문수보살을
원하면 문수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기
만 하고 그 행을 받들어 행하지 않기 때문
에 언제나 중생의 모습을 벗지 못하는 것
입니다.
누구나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
행동이 지극한 원행(願行)일때 확실한 과

보를 받아 불보살의 길을 열어 가는 것입
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과 잘 지내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선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극락세계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업이 불법
을 닦은 이의 원행이 아니면 극락에 머무
는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원행이
어야 합니다.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의 가
르침과 서원을 알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원력을 갖춰야 합니다. 원력이란 믿음
에서 나오는 것이고 원행은 그 믿음의 실
천인 겁니다.
이 나이든 남자에게도 큰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서원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
면 질질을 하기 일우어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몸을 벗고자 하는데 그
냥 늙거나 앉아서 죽음을 맞아 옷을 벗기
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몸에
불을 담겨 이 육신의 허상을 태움으로써
부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갚을까 합니다.
화미의 고통은 잠시이고 부처님 세상에 태
어나는 즐거움은 영원할 것이니 주저할 일
이 아닙니다.
(법화경) ‘악왕보살본사품 제23’에 회견
보살께서 일월정명덕 부처님 회상에서 수
행 정진 할 때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
三昧)를 증득하고 육신으로 공양함을 서원
하여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향유를 끼얹고 스스로 그 몸을
태워 공양 올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공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단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중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